

尙州 靑里 高墳 出土 청자 편년 연구

남 진 주*

차 례

I. 머리말	III. 상주 청리 고분 출토 청자의 편년
II. 상주 청리 고분 출토 청자의 특징	1. 순서배열법에 의한 자체 편년
1. 해무리굽 완류	2. 타유적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 편년
2. 접시류	IV. 맺음말
3. 사발류	
4. 병류	

I. 머리말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에서 '경부 고속전철 차량제작 건설부지'의 발굴조사가 1996년~1998년까지 이루어졌다. 이 유적에서는 12세기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청자가 출토되었다. 상주 지역은 『世宗實錄』 「地理志」에 자기소 3곳과 도기소 2곳이 기록되어 있고, 그중 上品자기소가 2곳 있었기 때문에 도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¹⁾ 그러나 지금까지 尙州지역의 가마터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간단한 지표 조사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도자소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글이 있을 뿐이다.²⁾

*충북대학교 강사

1)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磁器所三 一在中牟縣北楸縣里 上品, 一在中牟東己未常里 上品, 一在功城縣西院洞 中品, 陶器 所二 一在州西伐乙夜里 一在丹密縣丹谷 皆下品”

『世宗實錄』 「地理志」는 조선시대 1424년에서 1432년까지 조사되어 史料로 있다가 1454년에 세종실록에 편찬 수록된 것으로 당시 자기소 139개, 도기소 185개, 모두 324개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 네 곳이 상품 자기소로 기록되어 있다.

2) 田勝昌, 「15世紀 陶磁所 考察(Ⅰ)-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1號(1996), pp. 85~102.

본 논문에서는 상주 청리 A지구 고분에서 출토된 청자 55점, 백자 1점, 도기 7점을 포함하여 총 63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상주 청리 유적의 A지구 고려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있다.³⁾ 최근에는 과거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고려·조선시대의 민묘들이 발굴됨으로써 많은 양의 자기류가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자연구가 초기해무리굽 청자와 강진을 비롯한 양질청자에 집중되어 있었고, 연구대상은 명품 또는 발굴 혹은 정식 발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가마터 출토품 위주였다. 따라서 정확한 편년자료가 없이 출토되는 민묘 출토품의 편년설정을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반 민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정확한 편년자료는 부족하지만 함께 동반되는 유물상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동반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순서배열법이 있다. 이 글의 가장 큰 목적은 청리 청자에 순서배열법을 적용하여 편년을 설정하는데 있다.⁴⁾ 청리 청자의 편년 설정에 순서배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특징을 파악하여야 했다. 청리 청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완, 접시, 사발, 병으로 기형을 나누어 형식분류를 실시하였다. 그 후 각각의 유구에서 출토되는 동반유물상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물상과 형식분류된 각각의 기형에 대한 편년을 순서배열법을 이용함으로써 상대편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설정한 편년은 출토유물의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좀 더 구체적인 편년을 세우기 위하여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다른 청자 요지의 출토도편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순서배열법에서 도출된 상대편년 및 편년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청리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소위 조질의 녹색청자가 주를 이루는데 이를 명명하는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질의 녹색청자를 녹청자라고 불려왔다. 녹청자라는 개념은 1965년 인천 경서동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비롯되었고,⁵⁾ 시기적인 문제나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⁶⁾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으나 아직은 확실한 개념이 없어 기존의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글에서도 녹청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3) 본 글이 '상주 청리 A지구 고분군 출토 청자'에 국한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전개되는 앞으로의 글에서는 출토유물을 '청리 청자'로 명명하기로 하겠다.

4) 지금까지 고고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법론이나 미술사 장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도하였다. 이전에 도자사에서 이용한 것은 용인서리 가마터 보고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5) 崔淳雨,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7-6, (考古美術同人會 1966); 『考古美術』第1號~100號 合輯, 下卷-71호, (韓國美術史學會), pp. 206~209.

6) 綠靑磁라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시기설정에도 이견은 있었다. 먼저 崔淳雨 선생은 주) 5의 글에서 녹청자는 본격적인 청자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해남 진산리가마터와 완도해저유물 발견이후 尹龍二 선생은 11세기 후 반경 해안가의 조잡한 태토와 유약을 사용하여 제작된 지방양식 청자의 하나이며, 그 하한은 15~16세기 조선 초까지로 설정하였다. 녹청자의 개념은 양질에 대한 조질 청자라고 할 수 있는 막청자라고 기술하지만 더 연구되어 정립되어야 함을 밝혔다. 鄭良謨 선생은 1970년대 녹청자를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로 보았으나, 1980년대 이후 윤용이 선생의 설을 받아들여 해무리굽청자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였다.

II. 상주 청리 고분 출토 청자의 특징

본 장에서는 순서배열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청리 청자의 특징을 형식분류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토광묘 35기와 석곽묘 4기에서 출토된 완 2점, 접시 10점, 사발 25점, 병 16점, 이와 동반되는 도기병 7점 등 총 63점이다. 이 중 형식분류는 출토예가 적은 완을 제외하고 접시, 사발, 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물은 대체로 두 계열로 구분된다. 한 계열은 담청색과 회청색의 유조를 보이며 유약의 시유상태가 좋고 태토는 정선된 양질 청자이다. 또 한 계열은 녹청색 혹은 녹갈색의 유조를 띠고 유약의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으며 태토에도 철분이 많이 혼입된 녹청자이다. 그러면 기형별로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해무리굽 완류

청리에서는 선해무리굽 완과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⁷⁾ 선해무리굽 완은 내저면에 원각이 없는 내저곡면의 완으로 굽의 폭이 0.6cm이고 녹갈색의 유조를 띠며 백색내화토 받침을 하였다(圖 1).

한국식 해무리굽 완은 굽의 폭이 약 1cm로 비교적 넓고 굽안쪽을 약간 들리게 깎았으며, 내저면에 원각이 있다. 유조는 연한 회청색이며, 유약의 시유상태가 고르고, 백색내화토 받침을 하였다(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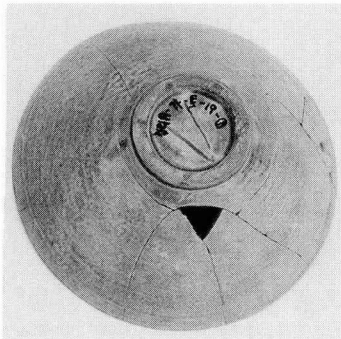


圖 1. 청자선해무리굽 완, 口徑 16cm, 高 5.3cm, 저경 5.2cm(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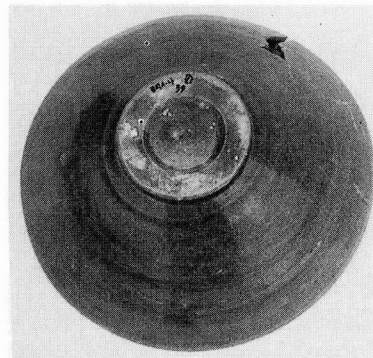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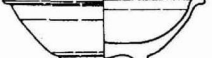

圖 2. 청자한국식해무리굽 완, 口徑 15.4cm, 高 5.9cm, 저경 5.5cm(상주 청리)

尹龍二, 「陶磁器」, 『莞島海底遺物』,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5), pp. 45~73; 「高麗青瓷窯址의 研究」, 『考古美術』171·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pp. 59~72; 「高麗青瓷의 變遷」, 『潤松文華』3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6), pp. 73~93; 「高麗·朝鮮時代 砂器그릇-綠靑磁·黑(褐)釉·石間」, 『고려·조선시대 사기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1994), pp. 145~159; 鄭良謨, 『高麗靑磁名品特別展』, (국립중앙박물관 1989), pp. 268~283; 「靑磁」, 『韓國의 美』4, (중앙일보사 1981), pp. 212~233; 「靑磁·土器」,

2. 접시류

접시는 모두 10점으로 양질·녹청자·상감청자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접시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적인 차이가 큰 상감청자 각접시를 제외하고 9점에 대한 형식 분류를 하였다. 먼저 양질을 I형, 녹청자를 II형으로 분류하고, II형은 다시 받침법과 구연의 외반정도에 따라 1·2식으로 분류하였다(표 1).

〈표 1〉 청자 접시류 형식분류 기준표

類	型	式	기 형	
접시류	I型			
	II型	1式		
		2式		
<p>〈참고〉 류(類): 접시류 형(型): 양질·녹청자의 구분 식(式): 번조받침법 및 구연의 외반정도</p>				

I형은 구연이 모두 외반하며 구연단을 약간 밀어넣어 화형을 만든 것도 있다. 굽은 다리굽과 안굽이 있고 받침은 백색내화토 받침이다(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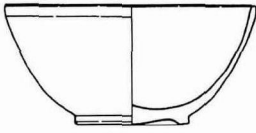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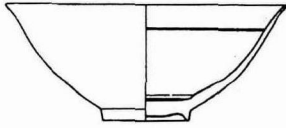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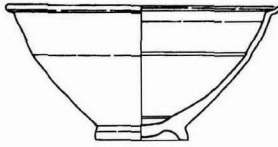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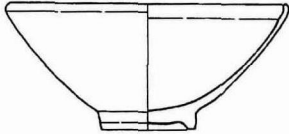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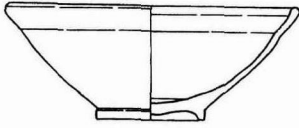
II형은 번조받침법과 구연의 외반정도에 따라 1·2식으로 각각 구분된다. II-1식은 구연이 심하게 외반하며 백색내화토 받침을 하였다(圖10·15). II-2식은 구연이 약간 외반하고, 번조 받침은 약간의 내화토에 모래를 다량으로 혼합하거나 모래빛을 받침을 하였다. II-1식에 비하여 운두가 깊고 내저면에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圖 11).

『國寶』3, (예경산업사), 1983, pp. 196~201; 「韓國의 陶磁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0), pp. 58~92.

7) 崔健,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창간호, (한국미술연구소 1995), p. 282에서 분류된 해무리굽의 명칭에 기준을 두고 이 글에서도 그와 같이 명명하였다.

3. 사발류

〈표 2〉 청자 사발류 유형분류 기준표

類	型	式	기 형
사발류	I 型(직립구연)		
	II 型(외반구연)	1式	
		2式	
	III 型(내만구연)	1式	
		2式	
	<p>〈참고〉 류(類): 사발류 형(型): 구연의 형태 식(式): 구연의 내·외반 각도 및 기타세부사항</p>		

사발은 靑里 遺蹟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종으로 25점이 출토되었다. 여기에는 화형 발이 1점 포함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24점의 사발을 중심으로 형식분류 하였다. 구연의 형태에 따라 Ⅰ형으로 분류하고 구연의 형태변화, 각도 그리고 세부적인 특징에 의해 式으로 분류하였다(표 2).

I 형은 직립구연의 사발로 진한 녹청색의 유조를 띠고 굽은 낮다. 지름이 넓으며 약간 외반하는 특징을 보이고, 굽에는 내화토 받침의 흔적이 있다.

II 형은 구연이 외반하는 사발로 구연의 외반각도에 따라 1式과 2式으로 분류된다. II-1式은 기벽이 저부에서 거의 사면으로 올라가다가 직립에 가깝게 외반하는 형태로 백색내화토 받침이 주를 이룬다. II-2式은 구연이 심하게 외반하고, 받침은 백색내화토 받침의 수가 줄고 내화토에 진흙이나 모래를 섞어 사용한 예가 증가한다.

III 형의 사발은 내만구연으로 구연의 내만 형태에 따라 1式과 2式으로 분류된다. III-1式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둥근 사면으로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내만하는 형태다. 대부분 백색내화토 받침이나 부분적으로 모래가 섞인 받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좁은 내저원각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많은 수의 사발에서 보여진다(圖 16). III-2式은 구연아래 약 1~2cm쯤에서 한 번 만곡하며 내만되는 형태로 받침은 내화토받침이 주를 이루나 부분적으로 황색의 진흙이 섞인 것도 보인다(圖 17).

화형발은 녹갈색의 유조를 띠고 좁고 예리하게 깎은 높은 굽과 내저원각이 있다. 그리고 동체부의 6곳에 홈을 넣어 화형을 만들었다(圖 20).

4. 병류

병은 대부분 광구병으로 靑磁 16점과 陶器 7점이 있다. 청자병류는 모두 녹청자 계열에 속한다. 분류는 철화병을 제외한 15점을 대상으로 먼저 크기에 기준을 두고 현재 잔존길이가 20cm 이상인 대형을 I 형, 11cm 이하인 소형의 유병을 II 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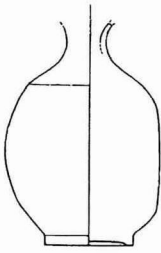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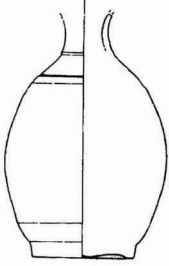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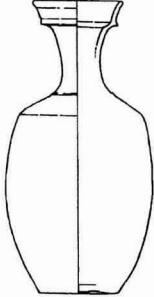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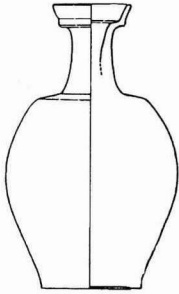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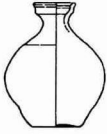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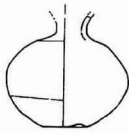
I 형은 1式과 2式으로 분류되는데, I-1式은 최대경이 동체부 중앙에 있고 굽이 있는 형태로 한쪽면이 편평한 편병과 둥근 형태의 병이 있다(圖 23). I-2式은 건부에 각이지며 동체부가 세장한 형태와 건부 약간 아래에 최대경을 두고 저부로 가면서 축소되는 형태가 있는데 목에는 이음선이 있다(圖 28).

II 형은 소형의 유병으로 동체가 둥글고 굽은 대마디굽과 안굽이다(圖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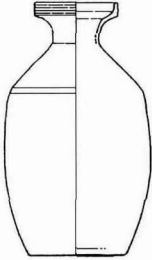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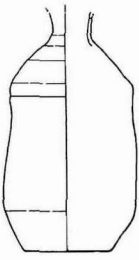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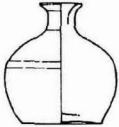
그리고 철화청자병은 긴 목에 건부의 최대경을 정점으로 저부까지 좁아지는 형태이다. 유약의 산화가 심하고 건부에는 철화로 단순화된 초문을 그리고 있다.

도기병은 7점인데 청자병과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 현재 잔존길이가 20cm 이상인 것을 I 형으로, 11cm 이하인 것을 II 형으로 분류하였다. I 형의 도기병은 대형으로 동체 양면이 편평한 편병의 형태이다(圖 31). II 형은 소형의 유병이다.

〈표 3〉 청자 병류 유형분류 기준표

類	型	式	기 형	
병류	Ⅰ型 (대형)	1式		
		2式		
	Ⅱ型 (소형)			
<p>〈참고〉 류(類): 병류 형(型): 크기에 의한 분류 식(式): 동체부 형태에 의한 분류</p>				

〈표 4〉 도기병류 유형 분류기준표

類	型	기 형	
도기 병류	I 型 (대형)		
	I 型 (소형)		
<p>〈참고〉 류(類): 도기병류 형(型): 크기에 의한 분류</p>			

Ⅲ. 상주 청리 고분군 출토 청자의 편년

1. 순서배열법에 의한 자체 편년

지금까지 앞 장에서는 각각의 기종에 대한 형식 분류를 통하여 청리 청자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형식 분류에서의 형태변화는 제작지 혹은 제작자가 다른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물에서 보이는 변화가 시기적인 차에 의한 것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래서 청리 청자와 이와 동반되는 도기의 자체적인 상대편년을 순서배열법을 적용하여 세워보고자 한다. 먼저 순서배열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順序配列法은 19세기말 Flinders Petrie가 이집트의 분묘를 대상으로 고안한 繼起編年法에서 기원하였다. 그후 많은 연구와 검증을 거쳐 발전된 相對年代測定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李

熙濬선생이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활용하면서 확산되었다.⁸⁾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상대편년 측정법은 形式學的 방법과 層序的 방법으로써 이는 변화의 외적요인이나 층위적 개념만이 강조된 것에 비교하면, 순서배열법은 유물구성의 內的 變異(internal vari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편년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즉 순서배열법은 編年單位의 集合體를 각 單位가 가진 屬性의 共有 여부나 형식의 相對頻度에 의거하여 類似度에 따라 配列함으로써 편년을 구하는 방법으로 有無順序配列法(Petrie 방식)과 頻度順序配列法이 있다.

「유무순서배열법」은 각 편년단위들이 가진 속성 또는 형식의 存在有無를 비교하는 것으로, 속성이나 형식이 연속이 되도록 나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배열한다면 유물형식의 분포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원칙을 생각한 것이다.

삼도 1. 유무 순서배열법의 배열 예

유구 \ 유물	a	b	c	d	e
1호	●	●		●	
2호	●	●			●
3호			●	●	●
4호	●		●	●	●
5호			●		
6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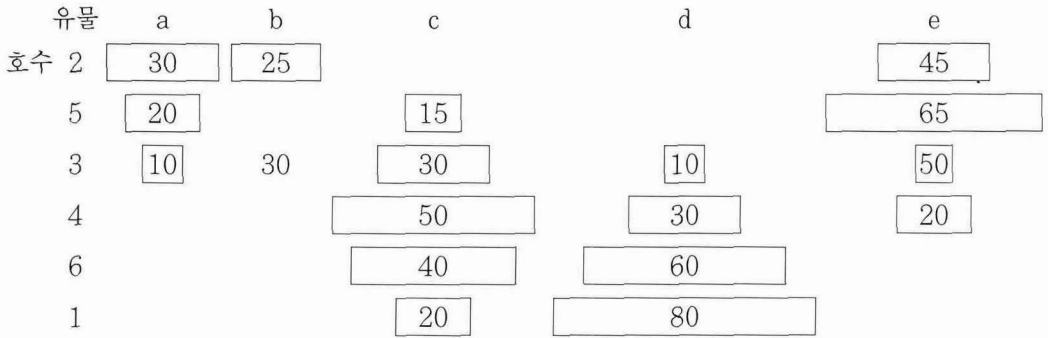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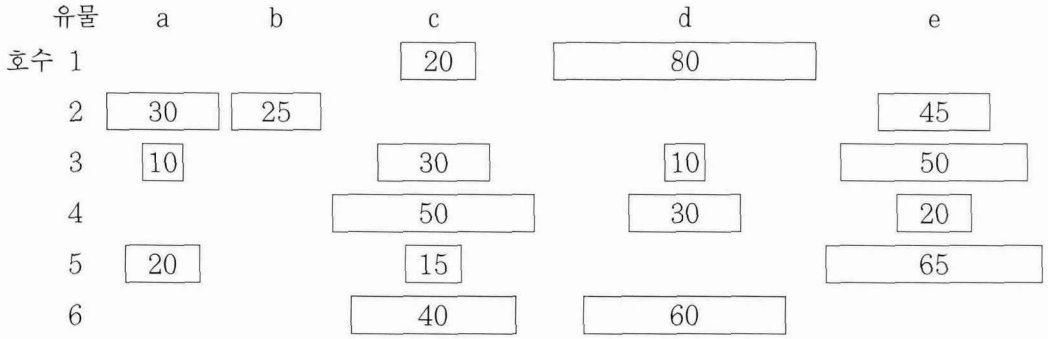
⇒⇒⇒

유구 \ 유물	a	b	c	d	e
2호	●	●			●
1호	●		●		●
4호	●		●	●	●
3호			●	●	●
6호			●	●	
5호			●		

「빈도순서배열법」은 각 편년단위들이 가진 속성 또는 형식의 구성빈도를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속성 구성빈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증가 후 감소하도록 배열한다는 원리를 가진다.

8) 李熙濬, 「形式學的方法의 問題點과 順序配列法(seriation)의 檢討」, 『韓國考古學報』14·15합집, (韓國考古學研究會 1983), pp. 133~164; 「韓國考古學 編年研究의 몇 가지 問題-相對編年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16, (韓國考古學研究會 1984), pp. 25~41; 「페트리 繼起年代法(sequence dating)의 編年原理考察」, 『嶺南考古學』1, (嶺南考古學會 1986), pp. 1~15; 「相對年代決定法의 綜合考察」, 『嶺南考古學』2, (嶺南考古學會 1986), pp. 1~29; 권학수, 「多次元尺度法을 통한 相對年代測定法의 개선연구」, 『韓國考古學報』32, (韓國考古學會 1995), pp. 5~39; Thomas C. Patterson著, 배기동 譯, 『고고학 이론 입문』, (學研文化社 1994) 등의 글들을 참고하였다.

삽도 2. 빈도 순서배열법의 배열 예



순서배열시 편년할 수 있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편년이 가능한 모든 고고학적·미술사적 단위가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편년단위의 요건은 持續期間, 傳統, 地域 문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순서배열법에 의해 제시된 순서는 편년 이외의 요소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서배열법의 결과에 편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비교대상들이 비슷한 시간폭을 지니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동일 문화전통 속에서 제한된 지역내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의 기준요소는 시간의 흐름에만 민감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순서배열 결과가 반드시 편년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편년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열된 순서배열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순서배열 표 자체에서는 어떠한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선후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자료를 잘 응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순서배열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청리 출토 유물을 순서배열법으로 상대편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모형의 선택은 자료가 빈도 순서배열법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지 못하고, 비교대상이 고분출토 유물이고 도굴에 의한 파괴도 없었기 때문에 유물간의 동반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순서배열 방식을 적용하였다.

대상은 출토품 중 각 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고 앞장의 형식분류에서 분류된 유형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도기와 병의 형식분류 중 I·II형은 크기에 의한 분류였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II형은 출토 예도 적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준유물이 없거나 지나치게 시기차가 큰 것, 기준유물은 있으나 공반되는 유물이 없어 배열상의 혼란을 주는 유구를 제외한 28개 유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출토유물 현황표를 만들고<표 5>, 발굴 지구나 유구 호수에 관계없이 연속성이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여 순서배열하였다<표 6>. 부분적으로는 만족할 만큼의 연속성을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일부 단기간동안 제작되다가 소멸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형들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출토유물의 빈도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어 존재시기의 공백이 큰 기형을 제외하고 일부공백을 채워넣어 다시 정리하여 보았다<표 7>.

그 결과 도기병 I형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도기병 I형과 함께 선해무리굽 완이 제작되었다. 도기병의 제작이 종결된 이후에도 해무리굽 완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선해무리굽 완에서 한국식 해무리굽 완으로의 형태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기병과 사발 I형이 동반되거나 빈도수에 문제가 있어 어떠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완에 이어 연속성을 보이는 것이 청자병 I-1式인데, 병의 재질은 도기에서 자기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나 형태면에 있어서는 도기의 전통이 남아있고 화형발을 공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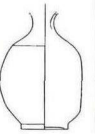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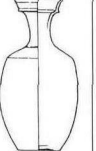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구연이 외반하는 II-1式 사발인데, 이 시기에 접시의 제작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시류는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지 않아 선후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II-2式的 사발이 II-1式 사발과 어느정도 공존하면서 제작되다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병 I-2式이 제작되었다. 병 I-2式은 불연속성을 보이며 출토되기는 하지만 사발 II-2式的 제작시기에서부터 III-2式 사발 제작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기간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III-1式 사발이 철화병과 함께 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사발 III-2式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순서배열법에서 도출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기병 I형> → <해무리굽 완> → <청자병 I-1式, 화형발> → <사발 II-1式, 접시류> → <사발 II-2式, 청자병 I-2式> → <사발 III-1式, 철화병> → <사발 III-2式>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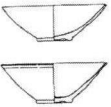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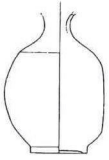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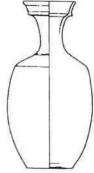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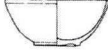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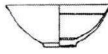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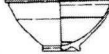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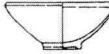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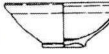

〈표 5〉 유물현황표

기종 호수	도기병		해무리굽완	병			사발					접시			기타	
	I	II		I-1	I-2	II	I	II-1	II-2	III-1	III-2	I	II-1	II-2		
가-토-2									●							정병
가-토-19	●		●													
가-토-22																뚜껑
가-토-41									●							
가-토-52				●												화형발
가-토-53						●						●			●	
가-토-91	●						●									
가-토-94					●											
가-토-96					●									●		
가-토-110									●					●		
가-토-157																각접시, 기타병
가-토-158												●			●	
가-토-165									●							
가-토-169									●						●	
가-토-176					●							●				
가-토-196				●												
가-토-204						●										
가-토-225					●							●				
가-토-234					●				●						●	
가-토-236					●											
가-곽-30																종지
가-곽-32									●							
가-곽-35									●	●						
나-토-6															●	
나-토-25					●								●			
나-토-28												●				분청
나-토-30				●												
나-토-56					●											
나-토-59			●													
나-토-64												●				
다-토-66												●				철화병
다-토-97					●				●	●						
다-토-106												●				
다-토-37					●											도기발
다-토-42		●							●							
다-토-52		●														
다-토-81	●															
다-토-90					●							●				
다-곽-2	●															

〈표 6〉 순서배열법에 의한 상대편년표

기형	도기	해무리굽완	병		사발					접시			기타
	I		I-1	I-2	I	II-1	II-2	III-1	III-2	I	II-1	II-2	
호수													
다81가곽2	●												
가19	●	●											
가91	●				●								
나59		●											
가196.나30			●										
가52			●										회형발
나41						●							
가110						●				●			
다42						●					●		
가169						●							●
가35						●							
가234						●							
가2,165,곽32						●							
나56				●			●						●
나63,106								●					
나66								●					철화병
나97				●				●					
가176,225				●								●	
다90				●								●	
가158				●								●	
가53				●								●	
나25				●						●			
가96				●									

〈표 6〉 순서배열법에 의한 상대편년표

기형	도기	해무리굽완	병		사발					접시
	I		I-1	I-2	I	II-1	II-2	III-1	III-2	
호수										
다81가곽2	■									
가19		■								
가91	■				■					
나59		■								
가196, 나30			■							
가52			■							
나41						■				
가110						■				
다42										
가169										■
가35										■
가234										■
가2, 165, 곽32										■
나56				■			■			
나63, 106				■						
나66				■						
나97				■				■		
가176, 225				■						
다90				■						
가158				■						
가53				■						
나25				■						
가96				■						■

2. 타유적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 편년

앞에서 순서배열법을 통해 청리 출토 유물의 특징과 자체적인 상대편년을 추정해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상대편년이 단지 상대편년으로만 존재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를 밝혀 구체적인 편년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몇몇 다른 유적의 유물과 비교를 통하여 청리 출토유물의 편년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비교되는 유물은 보고서가 간행된 유적의 유물을 중심으로 하였고, 유물의 시기는 기존의 보고서나 논문에서 제시된 편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1) 해무리굽 완류

청리에서는 선해무리굽과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圖 1·2). 이러한 해무리굽 청자는 청자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초기 청자가마터에서 출토되는 기형이다. 먼저 해무리굽 청자가 출토되는 유적을 알아보면, 선해무리굽 청자류는 龍仁 西里가마터 퇴적 Ⅲ·Ⅳ층, 鳳泉 圓山里 2호 1차 가마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식 해무리굽은 용인 서리 下層窯構와 퇴적 Ⅰ·Ⅱ층, 高敞 龍溪里 가마터, 康津 龍雲里 9호 가마터와 10호 1층 퇴적 출토유물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먼저 龍仁 西里 가마터는 白磁가마터로서 고고학적 층위조사에 의해 上·下 2基의 窯構와 4개 층의 퇴적층이 발굴되었다. 이 중 下層窯構는 벽돌가마로 퇴적 Ⅱ·Ⅲ층과 관련된 한국식해무리굽이 출토되며, 시기는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선해무리굽이 출토된 퇴적 Ⅳ층의 시기는 9세기 전반(819년경)경에 존재했다고 보고 백자의 발생을 9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용인 서리의 선해무리굽은 9세기 전반에서 10세기 전반까지로 편년되고, 한국식 해무리굽은 10세기 전반을 상한으로 편년할 수 있다.⁹⁾

용인 서리 출토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Ⅲ층 출토 선해무리굽완은 접지부의 너비가 0.5cm로 좁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는 내저곡면의 형태로 기벽도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올라가고, 번조반침은 백색내화도 반침이다(圖 3). 청리 해무리굽완과 비교할 때 굽의 폭이 비교적 넓어져 서로 비슷하나, 용인 서리 백자가 약간 곡면적이다. 그리고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접지면의 폭이 1.1cm내외로 약간 넓으나 접지부안을 들리게 깎았으며, 기벽은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고 내저면에는 좁은 원각이 있는 등 청리출토 유물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圖 4).

9) 李鍾宣·金載悅·朴淳發, 『龍仁西里高麗白磁窯』, (호암미술관 1987); 李鍾宣·金載悅·朴淳發, 「龍仁高麗白磁窯의 窯業變遷에 대한 試考-計量的 屬性分析을 통하여 본 窯業形態 變遷의 研究」, 『三佛金元龍博士停年退任記念論叢』下卷 1987), pp. 241~296; 金載悅, 「高麗白磁의 研究」(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7); 金載悅, 「龍仁 初期 白磁窯址發掘調查報告」, 『韓國 青磁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 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1990), pp. 47~53 등의 글들을 참고하였다.



圖 3. 백자선해무리굽 완, 호암미술관 소장(용인 서리 Ⅲ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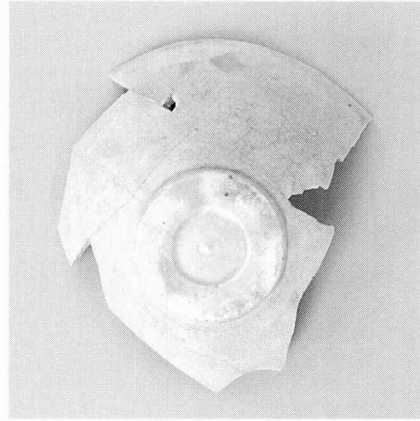


圖 4. 백자한국식해무리굽 완, 호암미술관 소장(용인 서리 Ⅰ층)

鳳泉 圓山里 가마터는 1989년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初期靑磁 가마터로 주목된다. 이 遺蹟에서는 4기의 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고, 이 중 제2호 4차 가마터에서「淳化三年(992)」,「淳化四年(993)」銘 靑磁片 10여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2호 4차 가마터의 자기를 10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3차 가마터에서는 고려 정종(946~949년)의 무덤인 안릉에서 출토된 자기와 유사한 도편이 출토됨을 근거로 10세기 중반에 개축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마의 개축기간을 약 40년으로 추정하였고, 2호 가마의 운영시기는 10세기 전반에서 10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¹⁰⁾

봉천 원산리 가마터 출토 유물을 살펴보면, 보고서에서는 원산리 출토 유물을 '해무리굽' 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으나 사진자료를 통해 볼 때 선해무리굽으로 추정된다(圖 5). 청리 해무리굽완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보면 굽의 폭이 좁고 예리하며 동체는 좀더 곡선적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창 용계리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은 전형적인 한국식 해무리굽완으로 접지부의 너비가 청리와 비교할 때 약간 넓기는 하지만 접지면 안쪽을 들리게 깎은 점, 내저에 원각이 있고 기벽이 사면으로 올라가는 등의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圖 6). 그리고 해무리굽 완의 제작시기는 주변 건물지에서 발견된 太平壬戌二年(1022)銘平瓦와 유사한 기와편이 가마터 주위에서 발견되어 11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

그리고 康津 龍雲里는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9호와 10호 I 층 퇴적에서 해무리굽이 출토되는

10)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 가마터 발굴 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루계 제 79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91), pp. 2~9;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12 (1992), pp. 306~321.

11) 鄭明鎬·尹龍二, 「靑磁窯址」, 『高敞雅山덤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5), pp.21~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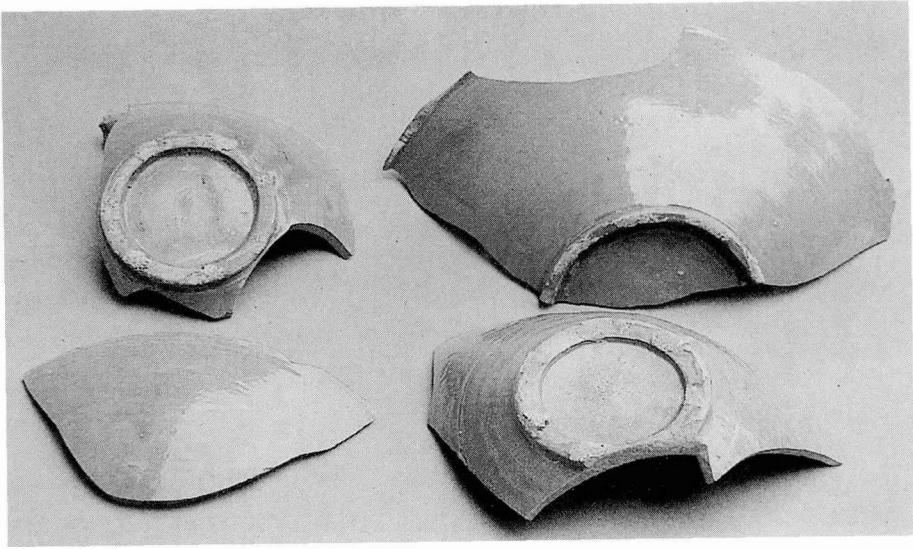


圖 5. 청자해무리굽편(봉천 원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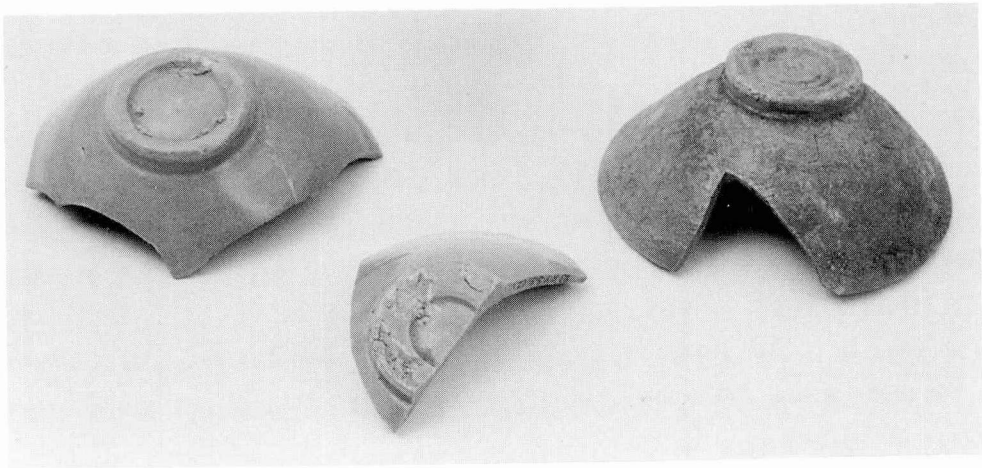


圖 6. 청자해무리굽 완(고창 용계리)

데, 9호에서는 중국식 해무리굽과 한국식 해무리굽이 모두 출토되고 10-I 층에서는 한국식 해무리굽이 출토된다. 시기적으로는 9호를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고, 10호 I 층을 10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추정하였다.¹²⁾ 그 특징을 보면 용운리 완은 접지부의 너비가 1.5cm 정도로 청리와 비교할 때 약간 넓다. 그러나 접지부 안쪽을 들리게 깎은 점, 내저면에

12)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 圖版編 (1996);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 本文編 (1997), p. 223.

원각이 뚜렷하며 기벽이 사면으로 올라가는 점 등은 청리와 유사하다(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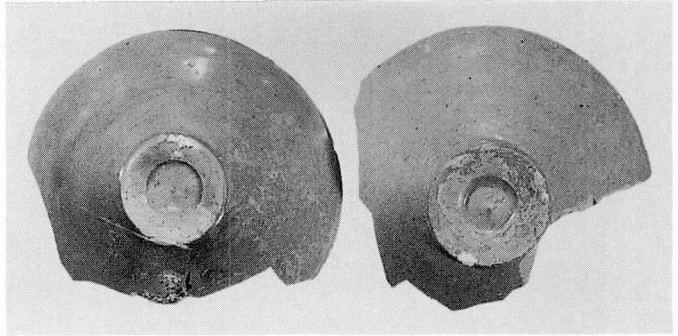


圖 7. 청자 해무리굽 완(강진 용운리 9호)

지금까지 여러 유적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청리 해무리굽 완을 편년해 보면, 상한은 선해무리굽의 시기로 용인 서리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인 서리 선해무리굽

의 상한은 Ⅳ층을 기준으로 하면 9세기 전반이 되나, 청리 선해무리굽완은 비교적 굽의 폭이 넓어지고 굽 깎음도 예리함이 줄은 용인 서리 퇴적 Ⅳ층의 상층이나 Ⅲ층의 출토 유물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빠르면 9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으로 편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하한은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기준이 되는데, 용인 서리나 강진 용운리를 기준으로 할 때 10세기 중반으로 편년되고, 고창 용계리를 기준으로 할 때 길게는 11세기까지도 하한으로 잡을 수 있다.

2) 접시 및 사발류

청리 유적에서 출토된 접시와 사발은 양질 청자와 녹청자가 모두 보인다. 특히 접시는 시기적인 변화를 뚜렷이 보인다가거나 분명한 편년자료가 없기 때문에 편년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다. 그러나 양질 청자는 강진 용운리 가마터 유물과 비교할 수 있었고, 녹청자류는 인천 경서동과 해남 진산리 및 완도 해저 유물과 비교 가능하였다. 먼저 접시류를 살펴본 후 사발류를 보기로 하겠다.

먼저 Ⅰ형으로 분류된 양질청자 접시류는 강진 용운리 9, 10호 Ⅰ층 출토 유물과 비교 가능하다. 비교되는 특징을 보면 접시의 굽은 안굽의 형태를 하고, 구연끝을 약간 밀어 넣어 화형을 만든 점등이 유사하다(圖 8·9).

Ⅱ형으로 분류된 녹청자 접시는 인천 경서동과 해남 진산리 가마터 출토 유물과 비교 가능하다.

인천 경서동 가마터는 10세기 전반에서 10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며, 출토되는 접시는 외반, 내만 그리고 직립되는 구연이 모두 출토되나 여기에서는 외반되는 접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서동 출토 외반 접시는 녹갈색의 유조를 띠며 굽은 대마디굽이고, 청리 Ⅱ-1式과 같이 운두가 낮고 구연이 심하게 외반하는 것과, Ⅱ-2式과 같이 운두가 깊고 내저면에 넓은 원각이 있으며 구연이 약간 외반하는 등 유사점이 있다(圖 10~12).¹³⁾

13) 鄭良謨·金英媛·具一會,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國立中央博物館 1990)에서 鄭良謨·金英媛 선생은 각각 다르게 편년하고 있다. 김영원 선생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으나 이것은 녹청자



圖 8. 청자접시 I型, 高 2.7cm
(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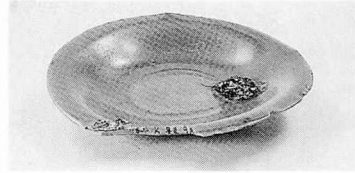


圖 9. 청자접시(강진 용운리)



圖 10. 청자접시 II-1式, 高 3.1cm
(상주 청리)



圖 11. 청자접시 II-2式, 高 4.4cm
(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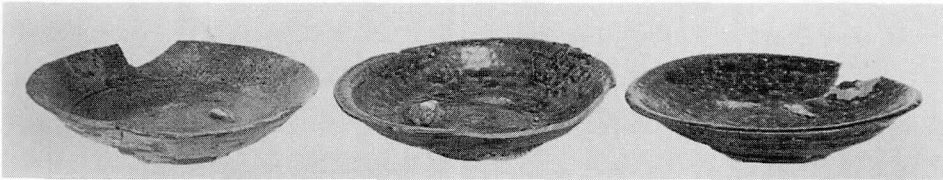


圖 12. 청자접시(인천 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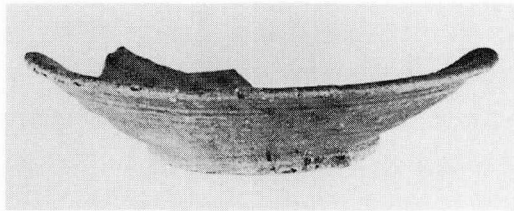


圖 13. 청자접시(해남 진산리)

해남 진산리 가마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후반까지로 편년되고, 완도 해저 유물은 진산리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 진산리에서 출토된 접시는 대부분 대마디굽이고, 비교적 낮은 운두에 구연이 심하게 외반되는 점이 청리 청자와 유사하다(圖 13). 완도 해저 유

편년을 기준으로 할 때 타당하지 않아 정양모 선생의 편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18-高麗 (1978), p. 202.

14) 해남 진산리 출토유물의 시기는 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그리고 具一會 선생은 인천 경서동 보고서에서 지표조사된 진산리 유물을 중심으로 11세기 전반에서 12세기

물 접시 중 구연을 등글게 마무리한 것은 청리 청자 접시 Ⅱ-1식과 형태상의 유사점이 있다(圖 14·15).¹⁵⁾



圖 14. 청자접시 Ⅱ-1식, 高 4.1cm
(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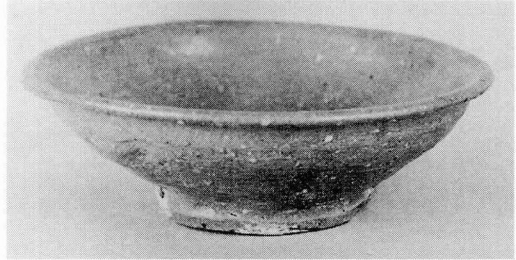


圖 15. 청자접시(완도 해저유물)

다음은 사발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리 사발은 구연이 직립, 외반, 내만하는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이 중 다른 유적과 비교 가능한 것은 Ⅱ·Ⅲ형으로 분류된 외반, 내만하는 사발과 화형 발이다.

인천 경서동 청자사발은 대부분 대마디굽이며 유조는 녹색이나 녹갈색, 암녹색을 띠는 등 청리출토 청자와 유사하다. 경서동 출토 내만 사발은 구연의 내만각도와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연 아래 깊은 홈을 넣어 단면형태가 갈고리 모양을 한단든지, 구연아래가 만곡되며 내만하는 등 청리 청자와 유사한 특징을 볼 수 있다(圖 16~18).¹⁶⁾

해남 진산리 출토 유물은 청리 청자 외반·내만구연 사발에서 보이는 형식과 유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외반되는 사발은 기형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청리 Ⅱ-1식 사발과 같이 약간 외반하는 것이 있다. 내만되는 사발은 청리 Ⅲ-1식 사발과 같이 약간 내만하는 것과 Ⅲ-2식과 같이 구연아래를 만곡시킨 것 등이 있다(圖 19).

초로 편년하였다. 그리고 완도해저유물은 제작수법과 특징이 해남 진산리 출토 유물과 유사하여 진산리에
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작시기는 尹龍二 선생이 완도해저유물 보고서에서 11세기 중·후반으로
편년하였고, 具一會 선생은 11세기 중반과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로 편년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해남 진산
리와 완도해저유물은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까지로 편년할 수 있다. 그러나 청리 청자와 유사한 특
징을 보이는 것은 11세기 후반까지로 편년되는 유물이다. 따라서 해남 진산리와 완도해저유물의 시기를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鄭良謨·金英媛·具一會, 주 13)의 책; 木浦大學校博物館,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1992); 尹龍二,
『陶磁器』, 『莞島海底遺物』,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5), pp. 45~73 등을 참고하였다.

15) 木浦大學校博物館, 주 14)의 책

16) 鄭良謨·金英媛·具一會, 주 13)의 책; 小學館, 주 13)의 책, p. 202.



圖 16. 청자사발 Ⅲ-1式,
高 7.4cm(상주 청리)



圖 17. 청자사발 Ⅲ-2式,
高 7.2cm(상주 청리)



圖 18. 청자사발(인천 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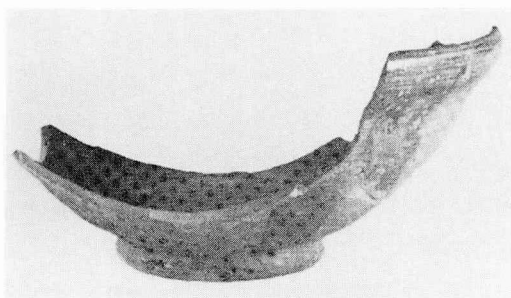


圖 19. 청자사발(해남 진산리)

위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청리 녹청자 접시와 사발의 시기는 인천 경서동과 해남 진산리 출토 유물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리 녹청자 접시와 사발의 상한은 10세기 전반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심적인 시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화형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형접시나 화형발은 초기 청자 가마터에서 출토 되는 것으로 초기청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청리 출토 화형발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리 화형발과 유사한 발은 강진 용운리 가마터와 완도 해저 유물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청리 화형발은 녹갈색의 유조를 띠는 사발로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좁고 높으며 내저면에는 내저원각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동체부의 6곳에 홈을 넣어 화형을 만들었다(圖 20).



圖 20. 청자화형발,
高 7.8cm(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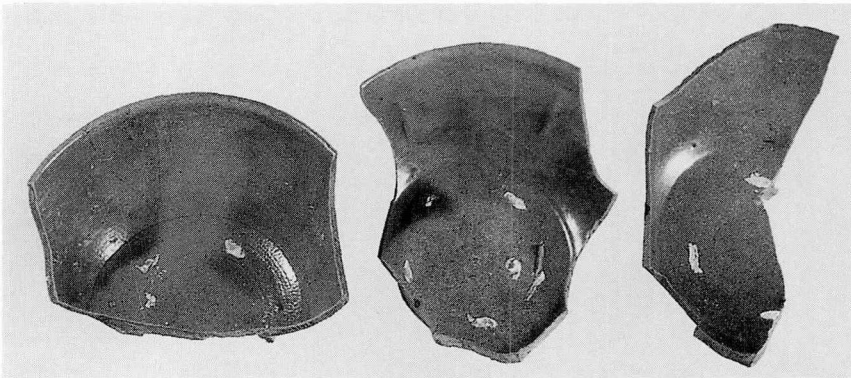


圖 21. 청자화형발(강진 용운리 9호)



圖 22. 청자화형발(완도 해저유물)

용운리 9·10호 I층에서 출토된 화형발은 녹갈색의 유조를 띠며 높고 예리하게 깎은 굽이 약간 외반한다. 기벽은 둥근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하거나 외반하는 특징을 보이며 외면만을 눌러 화형을 만들었다(圖 21).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청리 화형발과 유사함을 보인다.

그리고 완도에서 출토된 화형발은 청리나 용운리에서 출토된 화형발과 비교할 때 정형성은 좀 떨어지나 굽이 비교적 높고 구연끝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사발 외면에만 흙을 넣어 화형을 만들고 있는 유사점들을 찾을 수 있다(圖 22).¹⁷⁾

따라서 청리 화형발의 시기는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용운리를 기준으로 할 때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고, 이러한 양식은 완도 해저 유물에서 보이듯 11세기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병류

청자병을 검토하기에 앞서 청자와 동반하여 출토되는 도기병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리에서 출토된 도기병의 특징을 보면 2면편병으로 짧고 가는 목이 있고 구연 외부에는 3개의 돌대가 있다. 그리고 구연이 결실된 편병들도 평저로 짧은 목이 있는 2면편병이 주를 이룬다(圖 23). 이러한 편병류는 통일신라시대 말에 주로 보이는 것으로 초기청자의 편병이나 광구병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도기병이 출토된 유적은 울릉도 천부동 고분군, 안압지, 보령 진죽리, 영암 구림리, 미륵사지 그리고 봉천 원산리 가마터 등이다.

울릉도 천부동 고분군은 9세기에서 10세기로 편년하였고, 유물의 시기는 신라말에서 고려극초로 편년하였다. 따라서 울릉도 천부동 출토 도기병류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출토되는 도기는 1면과 4면 편병류로 수직에 가깝게 세워진 구연외면에 3개의 돌대가 있는 편병이나 기형상에서 청리와 차이를 보인다.¹⁸⁾

그리고 안압지 출토 도기는 층위적 발굴이 아니라는 한계점은 있으나 통일신라말인 9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외반하는 구연의 외면에 2~3개의 돌대가 있으나 전체적인 기형면에서 청리 출토 도기와 차이를 보인다.¹⁹⁾

또한 보령 진죽리 가마터 출토 도기는 지금까지 제작기술과 형식 및 질이 미륵사지와 일치하여 9세기로 편년하였고, 최근 발굴 후 C₁₄측정에 의해 요업시기의 개시가 8세기대(빠르면 7세기말)이며, 9세기 대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편병의 수가 많지만 구연 처리나 기형상에서 차이를 보인다.²⁰⁾

17)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莞島海底遺物』(1985), p. 313.

18) 金元龍, 『鬱陵島』, (國立博物館 1963), pp. 25~43.

19) 文化財管理局, 『雁鴨池』(1978); 國立中央博物館, 『雁鴨池-雁鴨池出土遺物特別展』(1980), p.53.

20) 忠南대학교 박물관, 「보령진죽리유적 - 현장설명회 자료」, 1998.

이형원, 「보령 진죽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1999), pp. 465~477.

영암 구림리 가마터는 8~9세기경의 統一新羅時代に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출토 유물은 4면편병으로 짧은 목이 있고 구연은 높고 넓으며 외면에 음각선을 돌려 2개 혹은 3개의 돌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청리와 비교할 때 구연단 아래가 심하게 각이 지는 등 차이를 보인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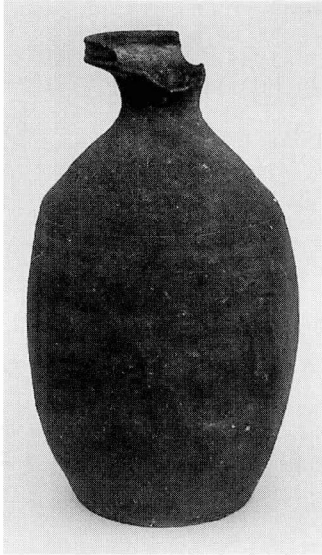


圖 23. 도기병 I型, 高 23.2cm
(상주 청리)



圖 24. 도기병(익산 미륵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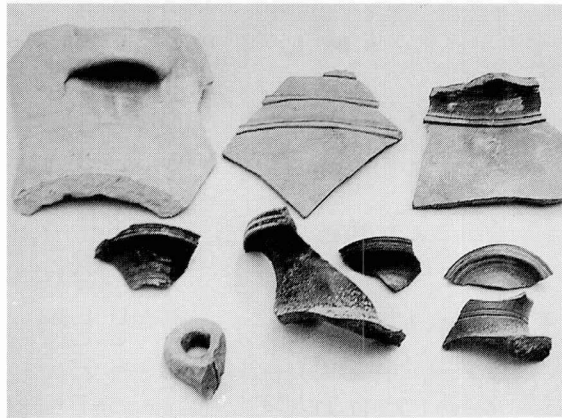


圖 25. 청자병(봉천 원산리)

2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靈岩郡 鳩林里土器窠址 發掘調査』(1988); 영암군·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영암의 토기전통과 鳩林陶器』(1999), pp. 84~105.

그리고 미륵사에서 출토된 도기는 大中12年(858년)銘大甕片과 동반하여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9세기로 편년하고 있는 자료로 둥근 형태의 병, 그리고 1·2·4면편병 등이 출토된다. 이중 2면 편병과 긴 경부가 있는 병의 구연외면에 돌대가 돌아가는 등 청리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圖 24).²²⁾

그리고 마지막으로 圓山里 1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광구병이 주목된다. 구연 외측면에 3중의 돌대문대가 새겨지는 특징 등은 청리병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圖 25).

지금까지 청리 출토 도기병을 여러 유적 출토 도기병과 비교해 본 결과 미륵사지 출토 도기병과 가장 유사하고 봉천 원산리 도기병과도 구연단 처리등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청리 도기병의 제작시기는 9세기 중반에서 10세기 전반까지로 추정된다.

다음은 청자병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리 청자병의 가장 큰 특징은 광구병과 편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광구병이 출토되는 유적은 강진 용운리 9호, 인천 경서동, 해남 진산리와 완도 해저 유물, 고창 용계리 등이 있다.

용운리 출토 청자병 가운데는 청리 청자병 I-1式 병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는 유물이 있다. 즉 낮은 굽이 있고, 동체의 형태는 둥글거나 한쪽만을 편평하게 눌러 편병의 형태를 하기도 한다(圖 26·27).²³⁾



圖 26. 청자병 I-1式, 高 22.9cm/
20.9cm(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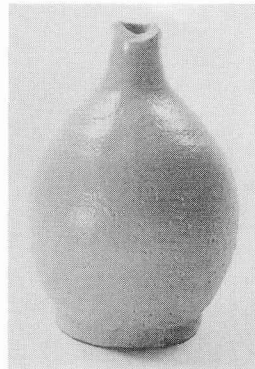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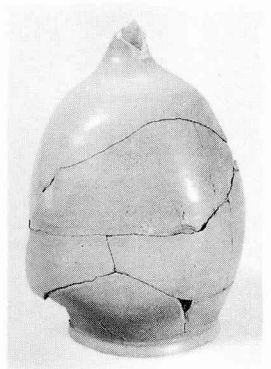


圖 27. 청자병 (강진 용운리)



인천 경서동에서 출토되는 광구병은 구연부와 일부 동체가 남아 있다. 그 특징을 보면 구연은 외반하고 목에는 이음선이 있고 둥근 동체와 각이진 견부가 있다. 그리고 구연단 아래는 비

22) 文化財管理局, 『彌勒寺-발굴조사보고서 I』(1984); 國立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 II』(1996).

23) 주 12)의 책

교적 완만한 각을 이루는 등 청리 청자병과 유사점이 보인다(圖 28 · 29).²⁴⁾

완도 해저 출토 광구병은 외반하는 광구와 긴목에 동체부의 최대경이 견부와 견부 약간 아래에 있는 등 청리 출토 I-2式 광구병과 유사하다(圖 28 · 30).²⁵⁾

고창 용계리 광구병은 기형상에서 차이가 있다.²⁶⁾



圖 28. 청자병 I-2式, 高 27cm/
28.2cm (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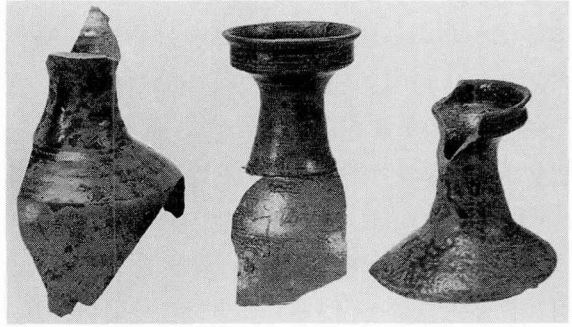


圖 29. 청자병 구연부편(인천 경서동)



圖 30. 청자병(완도해저유물)

24) 鄭良謨 · 金英媛 · 具一會, 주 13)의 책: 小學館, 주 13)의 책, p. 201.

25) 주 17)의 책

26) 주 11)의 책, p. 105, 262.

지금까지 청리 청자병과 다른 유적의 청자 광구병을 비교해 보았다. 청리 청자병 I-1式은 강진 용운리 출토병과 유사하여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I-2式은 인천 경서동, 해남 진산리와 완도 해저유물 등을 기준으로 할 때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후반까지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청리 유병은 동체가 둥근 것으로 강진 용운리, 고창 용계리, 해남 진산리와 완도 해저유물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圖 31~34). 유병은 지금까지 편년이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으나, 둥근 동체의 유병은 일반적으로 고려초로 편년된다.²⁷⁾ 앞의 시기를 종합하면 청리 도기 및 청자의 시기는 9세기 중반에서 11세기 후반까지임을 알 수 있었고 순서배열법에서 보여지는 순으로 편년되었음도 아울러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서배열법을 통해 얻어진 상대편년이 기존의 편년관점에서 볼 때 타당함을 뒷받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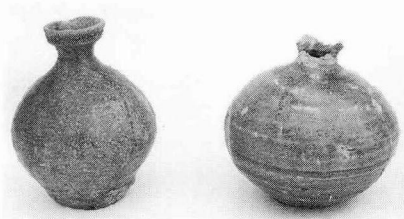


圖 31. 청자병 II型, 高 10.5cm/
9.1cm(상주 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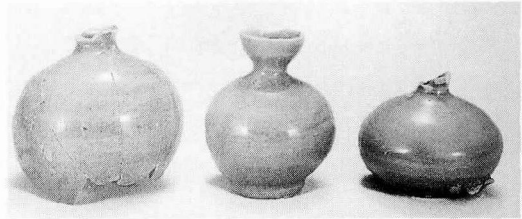


圖 32. 청자유병(강진 용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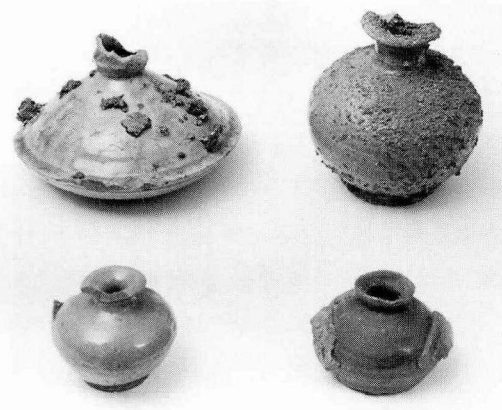


圖 33. 청자유병(고창 용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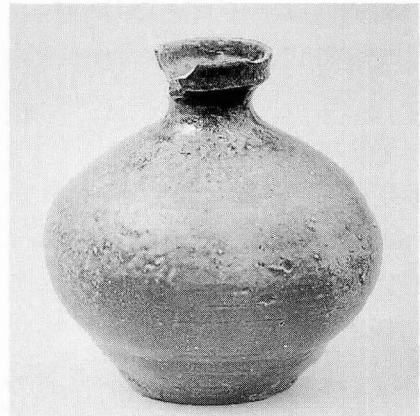


圖 34. 청자유병(완도해저유물)

27) 崔健, 「高麗 鐵繪青磁의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1), p. 22 참고

IV. 맺 음 말

지금까지 상주 청리 고분군 출토 청자의 편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도기를 비롯하여 청자 해무리굽완, 접시, 사발, 병 등 총 63점이다. 이러한 청자는 크게 양질과 조질의 녹청자로 구분되는데, 녹청자가 주를 이룬다.

청리 청자의 편년 설정을 위하여 순서배열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리 청자 및 도기의 형식 분류를 실시하여 순서배열법의 기초자료를 만들고, 그 형식을 중심으로 순서배열 하였다. 그러나 빈도수가 적어 부분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연속성을 보이지 않거나, 존재시기의 공백이 큰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형식분류의 기준이 시기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것, 지나치게 시기차가 큰 것, 기준유물이 있으나 공반되는 유물이 없어 배열 상 혼란을 주는 유구는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순서배열법에서는 <도기병 I型> → <해무리굽 완> → <청자병 I-1式, 화형발> → <사발 II-1式, 접시류> → <사발 II-2式, 청자병 I-2式> → <사발 III-1式, 철화병> → <사발 III-2式> 으로의 편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서배열법에서 도출된 편년은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상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서가 간행된 다른 지역의 유물과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인 편년안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도기병이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9세기 중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었다. 그리고 해무리굽완이 9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까지 편년되었고, 청자병 I-1式과 화형발이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반으로 편년되었다. 그 후 접시, 사발 II·III式과 청자병 I-2式이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후반까지 편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서배열법에서 도출된 편년과 타지역과의 비교에서 도출된 편년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점은 순서배열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리고 상주 청리 고분 출토 도기와 청자의 제작시기는 9세기 중반에서 1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다.

특히 이 글에서 순서배열법을 통한 상대편년을 설정하였는데, 순서배열법은 정확한 편년자료가 부족하나, 비교적 일정한 지역에서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고분군이라면 유물의 동반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서 활용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순서배열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자료만 있다면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줄어 보다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편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분 출토 유물의 편년뿐만 아니라 도자사 연구에서 상대편년 문제를 다룰 때 순서배열법의 방법론을 도입하면 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미술사 장르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순서배열시 도기와 청자만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동반된 금속유물을 함께 비교한다면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보충하고자 한다.

그리고 '녹청자'라는 용어는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어 보다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청자의 연구가 청자발생에 관한 쟁점으로 치우쳐 있었고 또한 용인 서리의 해무리굽완을 비롯하여 강진과 부안지방의 청자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연구범위의 폭을 넓혀 지방 청자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 Chronology of Celadons from the Kory Tombs at Chung-ri, Sangju, Kyngsangbuk-do Province

Nam, Jin-ju

Recent excavations of Kory tombs at Locality A of the Chung-ri site in Sangju, Kyngsangbuk-do Province, unearthed a number of celadons of early type, presumably dated earlier than the 12th century, as well as a variant of celadon with greenish color called nokch ngja (綠青磁).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ose finds and to establish the proper chronological order of sequence.

The materials for this analysis consist of 55 celadons, 1 white porcelain, and 7 pieces of earthenware. Most of them are bottles, dishes, bowls, and basins (wan 碗) with the halo-shaped design on the bottom called haemurigup. They are classified in several types and then arranged in a chronological sequence by applying the seriation method and comparing them with the materials from other sites.

The sequence thus revealed consists of: earthenware type I: haemurigup wan, bowl type I; celadon bottle type I-1, bowl with foliated rim: bowl type II-1, dish: bowl type II-2, celadon bottle type I-2: bowl type III-1, bottle with underglaze iron: bowl III-2.

By comparison with the materials from other sites each of them are dated: earthenware from the mid-9th to the early 10th centuries; haemurigup wan from the late 9th to the early 11th centuries; celadon bottle type I-1, bowl with foliated rim from the late 9th to the mid-10th centuries; bowl type II and III, dish, and celadon bottle type I-2 from the late 10th to the late 11th centuries. These dates corresponds well with the result from the seriation.